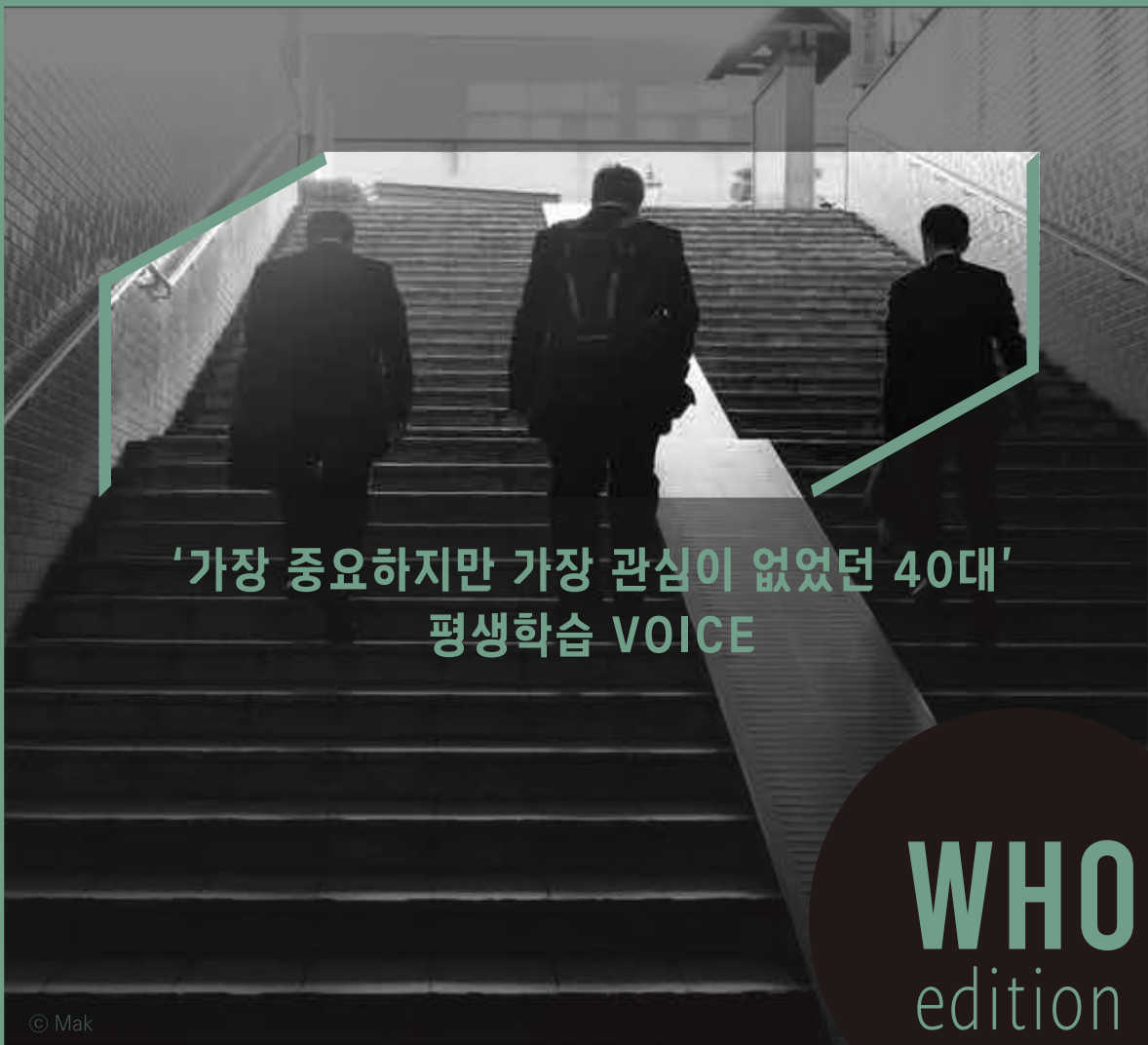


ISSUE FOCUS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없었던 40대'
평생학습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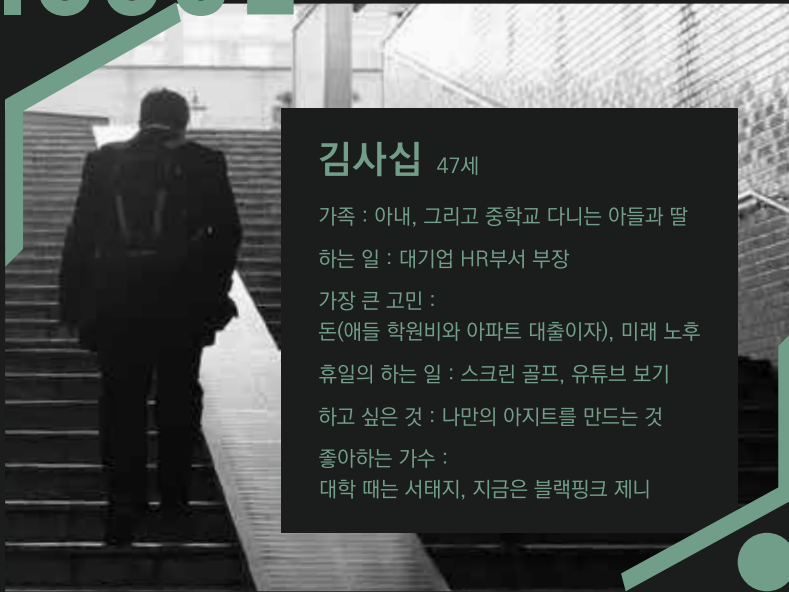
WHO
edition

© Mak

ISSUE FOCUS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없었던 40대’ 평생학습 VOICE

ISSUE



김사십 47세

가족 : 아내,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

하는 일 : 대기업 HR부서 부장

가장 큰 고민 :

돈(애들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이자), 미래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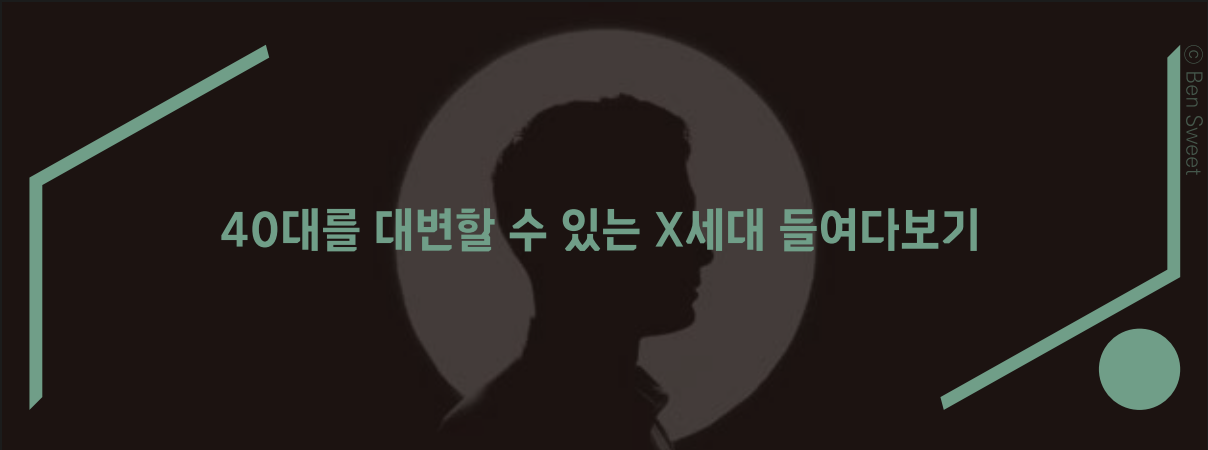
휴일의 하는 일 : 스크린 골프, 유튜브 보기

하고 싶은 것 :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것

좋아하는 가수 :

대학 때는 서태지, 지금은 블랙핑크 제니

공자가 말하는 불혹(不惑)은커녕 여전히 미혹(迷惑)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있는 40대 ‘나’를 말한다. 불확실성 시대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조직이 나의 은퇴를 보장하지 못할 것 같다. 심지어 100살 가까이 살 것 같은 나, 과연 축복일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 고갈도 걱정된다. 길어진 수명만큼 은퇴 전에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조직의 일에도 벅차다. MZ세대 직원과 50대 상사 사이에서 샌드백이 된 느낌이다. 심지어 정의할 수 없다(X)는 의미로 X세대로 불릴 정도로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세대 특징을 보인 첫 세대였던 우리 40대는 그동안 한목소리로 우리 요구를 내본 적이 없다. 이런 나의 관점에서 40대 시민의 요구를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40대를 대변할 수 있는 X세대 들여다보기

© Ben Sweet

40대를 대변할 수 있는 X세대는 디지털 전환 성공과 조직과 개인 사이 균형감을 통해 세대 간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잠재성,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불확실성 시대의 중심세대로서 조명이 필요한데, 위로는 386세대, 아래로는 MZ세대 사이에서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해 서로의 다름을 연결하는 세대로서 재정의되는 거다. 일터에서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중성, 행복·스트레스·외로움 등 X세대의 정서적 취약성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디지털 전환 성공과 조직과 개인 사이 균형감을 통한 세대 간 가교역할의 잠재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는 디지털원주민(digital native) 후배 세대와 대비되어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해온 세대 (digital immigrant)로도 불리는 X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를 생생하게 경험함. 두 세계 모두를 경험했다는 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는 의미임.

조직과 자신 사이의 균형감이 발달된 세대

현시점에서 여러 세대 중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문화적 유산과 코드에 비교적 열려있음. 이는 X세대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파고를 겪으면서 조직과 자신 사이의 균형 감각을 터득한 경험 덕분임. 여기서 발견되는 X세대 균형감이라는 특징은 자신의 '나' 다음에 대한 열망과 회사의 발전,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드러남(박정열, 2022).

다양성을 포용해 서로의 다름을 연결하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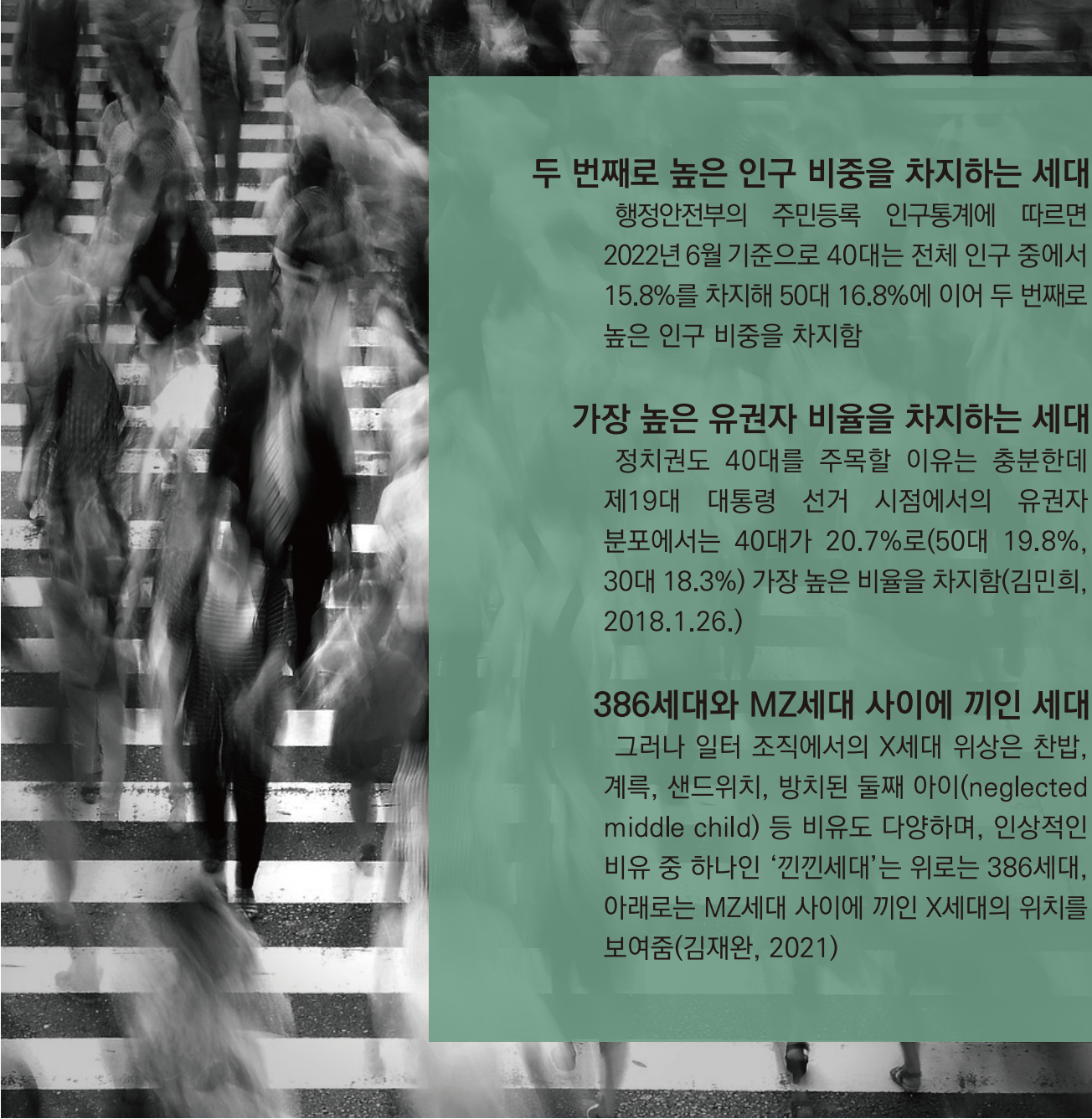
이러한 균형감은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해 서로의 다름을 연결하는 세대로서 X세대가 재정의되어야 함을 뒷받침함.

자기 경쟁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세대

X세대는 IMF 사태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기 경쟁력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높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로 과거보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이주영, 2021.4).



머릿수는 많지만, 존재감은 다소 없을지도 모르는 X세대 고충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40대는 전체 인구 중에서 15.8%를 차지해 50대 1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함

가장 높은 유권자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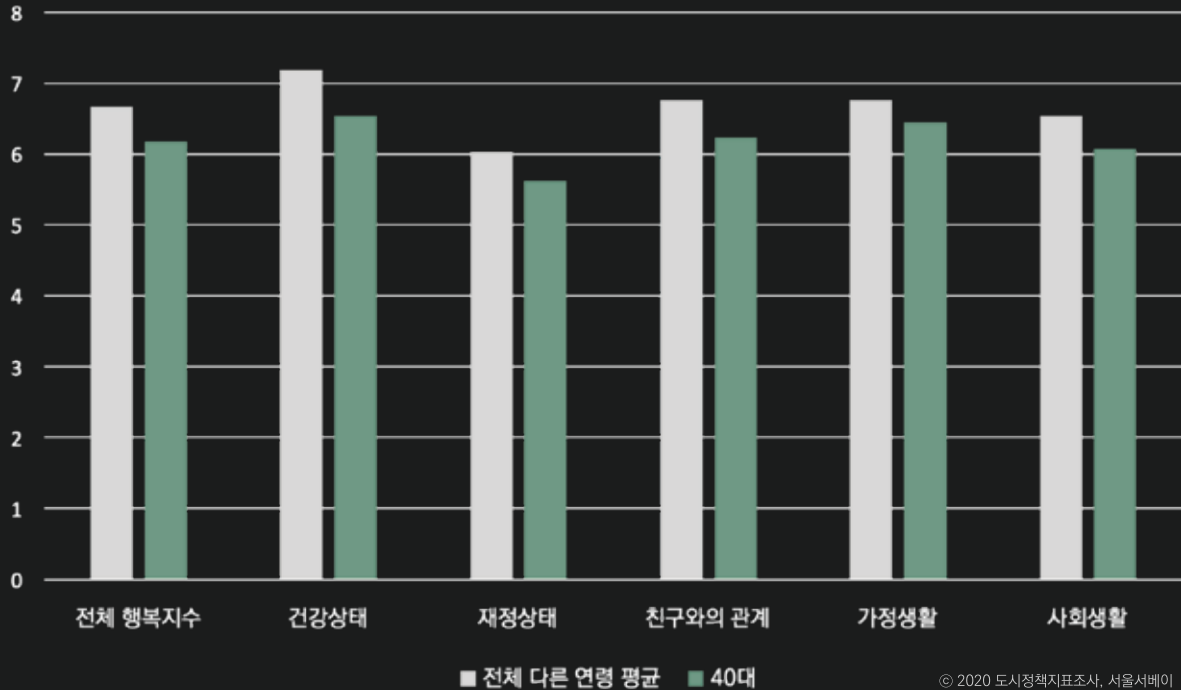
정치권도 40대를 주목할 이유는 충분한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점에서의 유권자 분포에서는 40대가 20.7%로(50대 19.8%, 30대 18.3%)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김민희, 2018.1.26.)

386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

그러나 일터 조직에서의 X세대 위상은 찬밥, 계륵, 샌드위치, 방치된 둘째 아이(neglected middle child) 등 비유도 다양하며, 인상적인 비유 중 하나인 ‘깁깁세대’는 위로는 386세대, 아래로는 MZ세대 사이에 끼인 X세대의 위치를 보여줌(김재완, 2021)

행복, 스트레스, 외로움 등 X세대의 정서적 취약성 높게 나타나...

40대 서울 시민 행복지수 비교



각종 행복지수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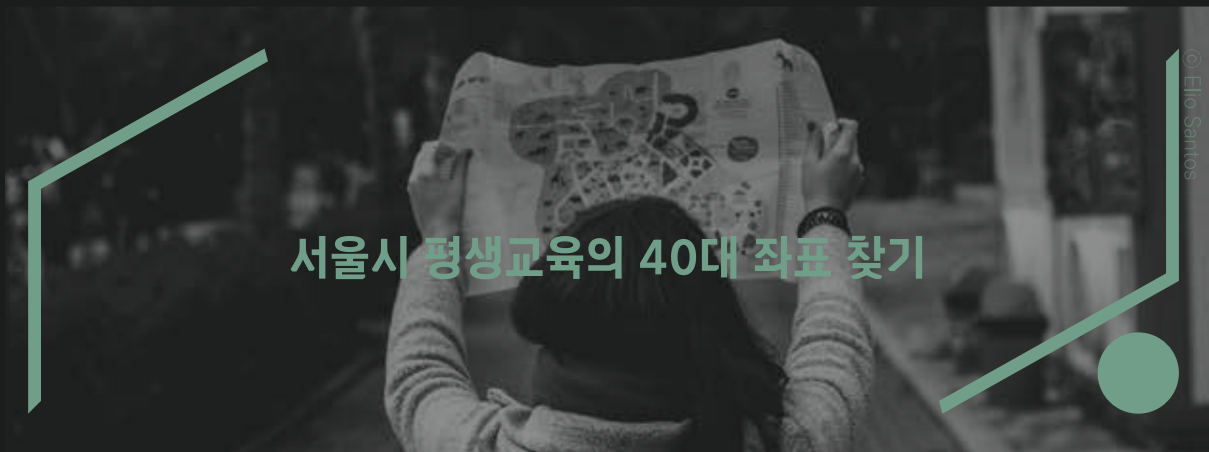
서울서베이(2021년) 연령 집단별 결과에서 40대 서울시민은 가정생활로부터의 행복, 사회생활로부터의 행복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가족관계에서의 외로움은 가장 높은 집단이었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40대 남성,
외롭고 직업만족도가 낮은
40대 여성

40대 안에서도 일상 스트레스 수준(높음)은 남성이, 가족관계에서의 외로움(높음)과 직업만족도(낮음)에서는 여성이 취약성을 보임.

전세계적으로
부정 정서 수준이 높은
40대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국가 모두 30-49세의 '전날 많이 느꼈던 감정이나 상태' 등에서 부정 정서 수준이 높음(OECD, 2020, p. 146). 특히, 한국 30-49세 집단은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라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에 비해 낮음)(OECD, 2020, p. 180)



서울시 평생교육의 40대 좌표 찾기

서울시민 40대는 전 나이대에서 노동시장 첫 진입기의 20대를 빼고는 ‘취업, 이직, 창업 등’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 욕구가 가장 높으며, 자격증 등 구체적인 미래 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다. 40대의 학습 방법 등의 성향은 5060 세대보다는 2030 세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기존의 강의나 오프라인 집단학습 방법과는 다른 개별화된 개인학습과 온·오프라인 혼합학습 방식을 선호한다.

40대는 직업 관련 평생학습 욕구가 20대 이어 가장 높은 집단

2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 욕구

2020년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21)에서 40대는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에서 두드러진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참여 욕구가 노동시장 첫 진입 준비기의 20대(22.7%)에 이어 40대(11.0%)가 가장 높음.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 시간도 2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대는 22.7%, 30대는 7.3%, 50대는 6.9%

미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

40대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경제/경영 강좌(10.2%), 자격증 인증과정(10.1%), 건강 및 의료 강좌(5.8%),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5.8%) 순으로 높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특수성을 고려하면 40대의 미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재무관리, 직업전환 또는 안정적 직업 보장을 위한 자격증 인증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미래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40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절실

기대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세대인 40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에 따른 재교육(reskill)과 능력향상교육(upskill)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40대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음.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준비에 누구보다 관심과 욕구를 가진 40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이 절실할 때임.



40대 당사자 중심의 학습 내용과 방법을 고민해야...



40대의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은 시간부족

40대의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49.0%,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 17.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50대보다는 2030세대와 유사한 40대의 학습방법 선호도

40대의 학습방법과 관련된 성향 등은 50대보다는 2030세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예를 들어, 교육기관을 통한 형식교육 외의 일상적 학습방법은 ‘유튜브(Youtube)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나 기술 습득(76.9%)’, ‘친구 또는 직장동료,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지식 습득(66.5%)’이 높음. 학습방법 선호도도 2030세대와 경향성이 유사한데, 개인학습 지향(47.3%)이 집단학습 지향(43.5)보다 높음. 다만 학습매체 선호도에서는 책이나 판서 중심의 전통매체(61.3%), 인터넷강의 등의 신매체(52.5%) 지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이후의 신매체 선호도가 10~30%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2030세대와 경향성이 유사하다 할 수 있음.

40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부족

〈서울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서울시, 2021.12.)〉에서는 40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며, 부모교육 일환의 아버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등 40대 당사자보다는 그 주변인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임. (※ 중장년 대상에서 40대를 포함하거나 경력단절 여성 대상의 프로그램은 일부 있음.)

40대를 대상으로 한 미래 준비 학습 콘텐츠의 부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f.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중, 40대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건강관리, 부모교육, 아동/청소년 등 3개의 영역이 있음. 건강관리 콘텐츠는 〈직장인의 건강관리〉와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 스트레스〉 2개, 부모교육 콘텐츠 21개, 아동/청소년 20개임. 미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콘텐츠는 부재함.

40대 안에서 각기 다른 요구 구체화 필요

40대를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하기보다는 40대 안에서 각기 다른 요구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예를 들어, AI와 자동화로 곧 사라질 저숙련 일자리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의 요구임. 평생교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로 보면, ‘소득이 낮은 편인 소규모 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안정성이 낮은 집단, 단순노무직 집단’의 참여율이 40대 안에서도 특히 더 낮았음. 즉, X세대가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디지털 전환에 비교적 익숙한 동일 집단 특성으로 정의되지만, 동일 세대 내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조건에 의한 계층 간 디지털 기술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다시 말해 40대에서도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40대의 정서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제도 필요

이번 호를 통해 사회조직과 가정에서, 그리고 시민의 일원으로도 가장 왕성한 역할을 하는 40대가 정서적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음을 발견함. 우리는 ‘OO세대’라는 세대론 그 자체보다는 40대가 공통으로 직면한 정서적 취약성을 보듬어줄 필요성을 강조함.

정서적 취약성 이슈를 1차원적으로 분석하면 명상 및 마음챙김 등의 평생학습 사업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나, 정서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 40대 평생학습 참여 요구를 보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경제 지식과 자격증 등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노동시장 첫 진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앞으로 40대를 기점으로 2030세대와 5060세대는 학습 요구와 취향의 경향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점에 집중해야함. 40대와 2030세대가 맞이할 중장년과 노년의 평생교육도 다른 형태와 방식의 고민이 필요해짐. 40대는 50대보다는 2030세대와 학습요구의 동질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세대 내에서도 그 차이성(젠더, 소득 수준, 직업·근무 유형,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함. 따라서 ‘OO세대’, ‘중장년’식으로 평생교육 수요자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대상의 다양성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함.

추가적으로 Sadler(2006)의 ‘마흔부터의 삶을 위한 원칙’을 인용하여 ①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②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③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④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⑥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생학습 지원과 관심을 제안함.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중년의 시기에 대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

- Cohen(2012), p. 35 -

FOCUS

서울 평생교육은 40대 서울시민의 정서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adler(2006)의 '마흔부터의 삶을 위한 원칙'들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중년 대상 자기계발 붐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유일의 교육전문기관으로,
40대 서울시민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학습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O, WHAT, HOW, WHY 4가지 카테고리에서 평생학습이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 이슈포커스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실태조사, 트렌드·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정리 및 작성

백평구 교수(국민대학교), 김혜영 팀장(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김민희(2018.1.26.). 잊혀진 X세대의 비명.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1>
- 김재완(2021). 나 아직 안 죽었다 : 낯선세대 헌정 에세이. 서울: 한빛비즈.
- 박정열(2022). 낯 세대 아닌 '다름'을 연결하는 세대 X세대가 VUCA뚫고 건강한 조직 만들어.
DBR 347호(2022년 6월 Issue 2)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1/article_no/10488/ac/magazine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실태(2021년 조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이주영(2021.4.22.). 나는 어디 세대? 하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3세대의 이야기. 경기도 뉴스포털.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4221108299570C048&s_code=C048
- Cohen. P. (2012). In our prime. 권혁(역) (2016). 중년이라는 상품의 역사. 서울: 돈을새김.
- OECD(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Korea Policy Centre(역)
(2021).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https://doi.org/10.1787/9870c393-en>
- Sadler, W. A.(2006). The third age. 김경숙(역) (2015).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